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6월 25일(목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OECD, 저금리 역풍 경고
- 2) 미 1분기 성장률 소폭 개선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우크라이나, 다음 달 디폴트 가능성
- 2) 스위스 프랑, 여전히 고평가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중국 소프트웨어 창업투자 2년 새 62배 급증
- 2) 포드·GM·BMW도 차량 공유서비스 실시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OECD, 저금리 역풍 경고

- 지난 24일 WSJ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처음으로 낸 연례 비즈니스·금융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으로 일부 나라의 금리는 현재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
 - 이에 따라 연기금과 보험사가 연금 및 수익 지급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
- OECD는 이 경우 금융기관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신용경색 등 잠재적인 충격에 노출, 전체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
 - OECD는 저금리 환경에서는 당분간 이런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험 및 연금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 언급
 - OECD는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위험이 조만간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
- OECD는 많은 보험사와 연기금이 정책조율로 저금리 역풍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이들 기관이 위험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고 있는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

2) 미 1분기 성장률 소폭 개선

- 지난 24일 미 상무부는 올 1·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-0.2%라고 발표

- 지난달 발표된 수정치는 -0.7%였지만 다소 개선됐으며 이는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소비지출 요인 때문으로 분석
- o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상무부 발표에 대해 소비가 일반적인 성장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평가
- o 미 연준도 경기흐름에 긍정적이며 블룸버그통신은 연준도 올 1·4분기 성장둔화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
- o 연준 의장은 최근 6월 FOMC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1·4분기 성장둔화 현상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, 1·4분기 부진에도 가구별 지출과 소비자 자신감은 견고해 보인다고 밝힘
- 따라서 미국 경제가 올해 성장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, 사실상 올해 내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시작함
- o 한편, 미 상무부는 내달 30일 2·4분기 GDP 잠정치를 발표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우크라이나, 다음 달 디폴트 가능성

- o 지난 24일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최신 투자노트를 내고 우크라이나가 향후 몇주 안에 채권단과 이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할 경우 다음달 24일이 시한인 채무 이자 지급일 전 지불 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전망
- o 우크라이나 정부는 채권단과 150억달러 규모인 대외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IMF가 기획한 40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구제금융 계획의 일부

- 또한, 한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상당 규모의 채무 원리금 삭감(헤어컷)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오는 24일 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나서 디폴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
 - 그는 채권단이 다음 달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40% 수준의 헤어컷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
- 한편, 프랭클린템플턴 주도의 채권단은 IMF 총재에 이날 보낸 공개서한에서 채무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삭감으로 우크라이나에 향후 4년간 160억달러 규모의 혜택을 주는 기존 제안 외 대안이 없다고 지적

2) 스위스 프랑, 여전히 고평가

- 지난 25일 스위스 중앙은행(SNB) 총재는 자국 통화가치가 여전히 고평가된 상태라고 강조하며 SNB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힘
- 그는 스위스 프랑의 절상은 스위스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, 한편으로 이 상황이 조만간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 우려
- SNB는 스위스 프랑 가치를 1유로당 1.20스위스 프랑으로 묶어둔 최저환율제를 지난 1월 전격 폐지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스위스 프랑 가치는 유로화 대비 13% 절상됨
 - 이보다 앞서 스위스는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, 통화가치 상승 방어에 나섬
- 한편, 지난주 SNB는 기준금리인 3개월 리보(LIBOR)금리 범위를 현행 -1.25%~-0.25%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예금금리 또한 -0.75%로 동결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중국 소프트웨어 창업투자 2년 새 62배 급증

- 지난 해 중국 내 창업투자 규모는 127억 달러, 그 중 49%에 해당하는 62억 달러는 소프트웨어(SW) 산업에 투자
 - 중국 제조업 성장 둔화 속 소프트웨어(SW) 산업 고속 성장세를 보임
- 중국 정부가 법인설립 규제를 완화한 작년 3월 이후 485만개의 기업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SW산업의 창업이 가장 활발
- 지난해 중국 증시에 상장된 A주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5.79%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, SW 관련 기업들은 40% 급증
- 한편,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일부 기업이 주도하던 중국 SW산업의 저변이 갈수록 확대

2) 포드·GM·BMW도 차량 공유서비스 실시

- 지난 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포드와 GM, BMW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
 - 현재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우버, 리프트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
- 차량 공유 서비스는 자사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이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검증된 다른 운전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방식
- 포드는 영국 런던에서 자사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차를 구매한 고객이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차량공유서비스를 6개월 동안 시범 실시

- o 또한, GM의 유럽 브랜드인 오펔은 고객들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차를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서비스 실시
- o BMW는 내년부터 자사 소형차 ‘미니’ 를 산 고객들이 현재 BMW가 운영 중인 차량 렌탈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
- o 이들 3개 회사의 차량공유서비스는 모두 차 주인이 자동차 임대료의 일부를 갖고 자동차 회사가 보험 비용 등으로 나머지를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